

민주 당권주자 3人 프레임 전쟁 ‘활활’

송영길 ‘세대교체’

민주 전대, 50·60·70 대결
50대 젊은 후보에 기회달라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이상 기초순) 후보는 저마다 초반 판세가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신경전을 펴고 있다. 나아가 경선 중 후반 구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경선 프레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제주·호남·충청지역 대의원 대회 및 합동연설회를 순회하며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난 후보들은 모두 자신감을 내비치며 고무된 상태다.

이 세 차례 합동 연설회를 통해 송 후보는 ‘세대교체론’을, 김 후보는 ‘경제 당대표론’을, 이 후보는 ‘강한 리더십’을 각각 들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열린 방송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와 연설회에서도 이 같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표 ‘경제전문당’

당·정·청 경험 유일 후보
민생경제 살려낼 책임자

우선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 후보는 이번 선거를 50·60·70대의 대결로 규정하고, 50대인 본인의 젊음과 활력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전남 합동연설회에서도 “이해찬·김진표 후보는 이미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장관, 총리, 부총리를 다 했다”며 “이 후보는 53세 때 국무총리를, 김 후보는 57세 때 경제부총리를 했다. 이제 56세인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역설했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송 후보의 열정적인 연설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 반응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광주·전남에서 ‘제2의 노무현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히려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며, 자신이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살려낼 책임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해찬 ‘강한 리더십’

수구세력, 갈등·분열 노력
당내 힘 모으고 정책 집중

전날 연설에서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당·정·청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로서, 일치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캠프 관계자는 “합동 연설회에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메시지를 던져 반응이 좋았다”며 “이해찬·김진표 후보가 확실한 ‘2강’을 이룬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당내 균열을 경계하고 정책 토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캠프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상대 후보를 겨냥해 전선을 치는 것보다는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 연설에서 “경제·

통합·소통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철통 같은 단결”이라면서 “수구 세력이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기다리는데,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세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MBC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 충청권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후보들은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식 공방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책임자임을 호소하는 한편 지역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충청 민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송 후보는 “개별 의원을 빼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야당 대표와 토론하고 협의하며 개혁 입법을 위한 협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야당을 경쟁적 동반자로 생각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협치, 유연한 협상력으로 최고의 협치를 추구할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6일 오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사무실에서 정동영(오른쪽 두번째) 민주평화당 대표와 최고위원·국회의원이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대표 첫 일정으로 부산 찾은 정동영

최고위 개최...한진중공업 노조 만남·노 전대통령 묘역 참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6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택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본격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내려가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2011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희망버스’ 시위가 있었던 곳이다. 보통 당대표들은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정 대

표는 다른 길을 택했다. 호남 기반의 평화당 대표가 부산을 민생현장의 첫 방문지로 정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한진중공업 사장과 노조원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시대적 화두로 가장 절박한 것이 일자리”라며 “조선산업을 재부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한진중공업에 다녀왔습니다. 늘 약자 편에 서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잊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지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시기를 전후로 노 전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 같은 첫날 행보와 전날 당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보다 더 정의롭게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정 대표가 진보적 의

제에 좀 더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김해 일정을 마친 뒤 저녁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출신 김주중씨 빈소를 찾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민생정당에 방점을 찍는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연대와 개혁입법연대, 협치내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연대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는 “올 12월을 넘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연대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드루킹 특검 연장’ 공방

민주 “野 정치 공세”...한국당 “연장 불가피”

여야 정치권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소환된 6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실제적 진실 파악을 위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는 한편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엄호했다.

한국당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가 특검 수사개시 41일만에 소환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며 “25일 종료되는 특검 1차 수사기간은 남은 수사과제를 감안할 때 부족하므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흡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검정의 부실 수사는 오히려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는니 내용이 빠져다니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임명됐다. 소위 위원으로는 초선의 의원인 김중석 비대위원과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 정진석(4선)·이진복(3선)·유민봉(초선)·송희경(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정책·대안 정당 소위 위원장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소위에는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중석 비대위원 등 각 상임위원회 한국당 간사 전원,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3선), 추경호 의원(초선) 등이 활동하게 된다.

당의 재정과 조직 개편을 주도할 ‘열린·투명정당 소위’ 위원장에는 나경원 의원(4선)이, 소위 위원에는 김용태 사무총장(3선)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초선), 7일 발표될 조직부총장과 홍보본부장, 정양석(재선)·김상훈(재선)·성

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굴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특검팀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정치 특검이란 오명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되며, 특검은 수사 내용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달라지려나

비대위 산하 당 개혁 4개 소위·1개 특위 신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비대위 산하에 당 쇄신과 정치개혁 등을 위한 4개 소위와 1개 특위를 신설했다.

4개 소위 중 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정할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위원장에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소위 위원으로는 초선의 의원인 김중석 비대위원과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 정진석(4선)·이진복(3선)·유민봉(초선)·송희경(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정책·대안 정당 소위 위원장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소위에는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중석 비대위원 등 각 상임위원회 한국당 간사 전원,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3선), 추경호 의원(초선) 등이 활동하게 된다.

당의 재정과 조직 개편을 주도할 ‘열린·투명정당 소위’ 위원장에는 나경원 의원(4선)이, 소위 위원에는 김용태 사무총장(3선)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초선), 7일 발표될 조직부총장과 홍보본부장, 정양석(재선)·김상훈(재선)·성

일중(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공천제도 개선과 당내 민주화 문제를 다루게 될 ‘시스템·정치개혁 소위’ 위원장에는 최병길 비대위원이, 소위 위원에는 박덕흠(재선)·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과 조경태(4선)·김명연(재선)·김현아(초선)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여성·청년 특위는 이수희·정현호 비대위원이 책임지고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공천 개혁 방향에 대해 “공정히 민갑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단, 더 이상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멈춘 것 같다”면서 “일회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 작업을 하면 반드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지경 기자 jkpark@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신청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9평 건277평
▶ 감평가 12억9천 → 최저가 7억1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1층상가)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아파트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제 (2평)
▶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남동 현대아파트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④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아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2천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988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⑦ 광산구 오산동 (공장) 토508평 건56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